

# 녹슬고 훼손되고...생활체육시설 관리 엉망

### 곳곳 잡초 무성하고 정자 옆 농구대 설치로 이용 못해 시민들 분통 광주 구청들 예산·인력 핑계 방치...관리 주체도 분산되며 비효율

지난 12일 오후 8시께 북구 문흥동 근린공원은 주말을 맞아 운동이나 산책을 나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공원 한 켠에 마련된 동네 체육시설은 어찌 된 일인지 외면을 받고 있었다. 간혹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려 했지만, 곳곳에 녹이 쓴 체육시설들은 '뽕그덕' 소리를 내며 힘겹게 움직였고 이용객도 발길을 돌렸다. 이날 방문한 북구 석곡동 천변인근 빈터에 설치된 운동기구들도 녹이 쓴 채 방치돼 있던 마찬가지였다.

광주의 다른 공원과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북구 중흥동 북구청 인근 효죽어린이공원에 농구골대는 정자와 너무 가까워 사실상

농구장 이용이 불가능했다. 동구 학동 천변고수부지 체육시설 또한 주변에 잡초가 무성해 이용이 어려움이 있었다.

북구 연제동 첨단2산업체육공원 농구장은 바닥재가 벗겨져 있었고 농구골대 그늘은 훼손된 채 방치돼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구청에 농구장 정비를 요청했지만, 구청은 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그들만 교체했다.

김연자(여·62·북구 문흥동)씨는 "문흥동 근린공원을 자주 이용하는데, 스트레칭기구 '거꾸리'가 흔들흔들해서 관리사무소에 고쳐달라고 요청했더니 20여 일이 지난 후에야 수리됐다"며 "녹이 슬어 있는 시설도 몇 개월째 그대로다. 일부 시민들은 옷에 녹이 묻는 게 싫어 직접 깎개를 가지고

와 같이 놓고 이용하는 실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세금을 투입해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한 동네 체육시설들이 자치단체의 관리 부실로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 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줄임말)을 지키려는 시민들이 급증하면서 녹슬고 방치된 체육시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3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시민의 휴식처와 체육공간 제공 등을 목적으로 도심 공원과 빈터 등에 각종 운동 기구들이 설치돼 운영중이다.

광주지역의 생활체육시설은 동구 115곳·서구 113곳·남구 161곳·북구 85곳·광산구 114곳 등 총 588곳에 달한다.

하지만, 설치 이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용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관리 예산·인력난 등도 문제지만, 각 자치구에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 주체를 시설과, 녹지와 등 2개 이상으로 분산하는 바람에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공원 환경정리 등은 해당 자치구 소관인 만큼 자치구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부품이 있을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하지만 부품이 없을 시에는 조치를 취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자치구 별로 100곳이 넘는 생활 체육시설을 관리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명했다.

시민 김은석(47·광주시 동구)씨는 "자치단체에서 시민세금으로 여기저기 새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만 급급해 하는 듯 하다"면서 "기존에 설치된 운동시설이나 제대로 관리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시 북구 문흥동 근린공원의 운동기구(왼쪽)는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녹이 슬어 있고, 중흥동 효죽어린이공원의 농구골대에는 정자가 들어서 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 근린공원의 운동기구(왼쪽)는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녹이 슬어 있고, 중흥동 효죽어린이공원의 농구골대에는 정자가 들어서 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여수 야산에 경비행기 불시착...조종사 무사

13일 오후 2시께 여수시 소라면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소형 경비행기가 불시착했다. (사진)

13일 오후 2시께 여수시 소라면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소형 경비행기가 불시착했다. (사진)

이씨는 오후 1시 52분 여수공항에서 이륙해 비행훈련원 사무실이 소재한 무안공항으로 향하다 이륙 8분만에 불시착했다.

이륙 후 기체 엔진에 이상함을 느낀 이씨는 기체에 설치된 낙하산을 작동시켜 하강하다 낙하산이 고압선에 걸리면서 운항을 멈췄다.

해당 기종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기

체가 통째로 낙하산에 매달려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여수소방서는 소방대원 30명을 투입해 구조작업에 나서 조종석에 있던 이씨를 구조했다. 이씨는 가벼운 찰과상 등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체는 소라초등학교에서 800m 떨어진 곳에 불시착했으며 행인이나 건물에 없는 야산 자락에 떨어져 인명피해는 없었다.

무안비행훈련원은 SR-20기체 4기를 보유 중이며, 2016년 6월 17일 무안군 현경면 수양리 야산의 밭에 추락한 경비행기와 같은 기종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영광 주민들, 원전 수동정지 관련 한수원 등 검찰 고발

영광주민들이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관계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원전 관리 부실 책임자인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한빛 1호기 제어봉 조작실 패에 따른 열 출력 급증사건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운영기술 지침서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자격자가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영광군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놀라게 했다"며 "원자력안전

위원회는 지난 20일 특별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선포조사에 불과한 것으로 부득이하게 검찰 고발을 통해 진실규명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또 "산자부는 지난해부터 한빛원전 1호기에서 6차례의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2호기에서는 증기발생기 고수위로 인한 원자로 정지, 5호기는 보호계전기 작동오류로 인한 발전정지 등 수도 없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지만 방관했다"며 "그동안의 대응 방식을 지켜 봤을 때 정부기관을 결코 신뢰 할 수 없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 무더기 검거

운영자·대포통장 공급책 등  
광주지검, 25명 기소·14명 수배

검찰이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대포통장을 전문적으로 유통한 공급책들을 무더기로 붙잡았다.

광주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도박장 개장 등) 등으로 A(27)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B(37)씨 등 달아난 14명은 지명수배를 내리고 인터넷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이 이번엔 입건한 피의자는 모두 41명에 이른다.

A씨 등 16명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4개를 개설·운영하며 300억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2억5000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와 가방, 의류, 가상화폐 등 7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 했다.

C(35)씨 등 25명은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 170개를 A씨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공급해 10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법인통장 1개당 월 150만원 안팎의 사용료를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할 세무서에 피의자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43곳의 사업자 등록 직권말소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유령법인 통장 개설자 중 상당수는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과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으로, 매달 지급되는 돈의 유혹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것을 감수하고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학교 암막스크린 납품 비리' 전남교육청 압수수색

전남 일선 학교 물품 구매 계약 비리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최근 전남도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13일 전남지방경찰청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일 교육청 일부 실과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암막 스크린의 학교 납품·설치 과정을 수사하며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와 알선업자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조달청

을 통해 전남 지역 학교들의 암막용 전동수동 암막용 스크린을 공급하며 계약 내용보다 낮은 사양의 제품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스크린을 설치한 학교는 53곳으로, 26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다.

경찰은 특정 업체 한곳에서 대부분 계약이 이뤄진 경우와 알선업체 3곳에서 학교, 교육청 공무원 등에게 제품을 홍보하며 부정 정략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기아차 취업사기' 친구 도피 도운 경찰간부 징역 10개월

기아차 취업 사기로 수배된 친구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판사 김진환)은 1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전남지방경찰청 A경정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판사는 "경찰의 직분을 망각하고 은신

처를 제공하거나 도피 자금을 빌려줬으며 도피에 도움이 되도록 지인을 소개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22년 넘게 성실히 근무한 점, 30년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17년 말부터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7월 여수에서 검거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20대 BJ, 술 마시며 팬미팅하다...혼계하는 30대 팬 뺨 때려

○...20대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BJ)가 팬미팅을 하던 중 술에 취해 30대 팬의 뺨을 때려 경찰서행.

○...1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붙잡힌 A(29)씨는 지난 12일 밤 11시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국밥집에서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팬 3명과 팬미팅 겸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차이도 큰데, 반말을 하지말라"고 혼계하는 팬 B(37)씨의 뺨을 때렸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팬미팅의 딱딱한 분위기가 싫어 팬들에게 반말을 좀 했는데, B씨가 기분 나쁠 정도로 혼계해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제품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신산업장관, 4개 단계별 우수·전북·전남·제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서남해 예산광역시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규모) 추진 가력함에 경쟁 노력

**ESS·설계·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주 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 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